

權近의 『書經』 舜三百 圖說과 圖說經學의 特징

조현석 *

-
1. 서론
 2. 본론
 - 1) 권근의 天文圖說과 ‘舜三百’ 圖說
 - 2) 〈一舜生閏之圖〉 분석
 - 3) 권근 ‘기삼백’ 도설의 圖說經學적 특징
 3.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여말선초의 사상가 權近의 ‘舜三百’ 圖說 〈一舜生閏之圖〉를 분석하였다. 이는 권근의 天人合一 사상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늘[天]과 관련된 天文圖說의 하나로, 권근의 핵심 사상이 담긴 『入學圖說』의 〈天人心性合一之圖〉와 서로 配應하는 도설이다. 두 도설의 좌측과 우측에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 [선과 악/해와 달]을 배치하였고, 최하부의 우측에는 두 도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天人合一/歲功成]이 제시되어 있다. 그 저변에는 사람의 心性과 하늘의 自然律에 대한 도식화를 통하여 천인합일 사상을 『입학도설』의 前集과 後集에 유기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또한 ‘圖說經學’의 한 가지 사례로 권근의 〈일기생윤지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설경학의 體系性, 簡便性, 明澄性 등의 특징이 〈일기생윤지도〉에도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별관으로 ‘도설경학’에 대한 試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daljonam@naver.com

論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주제어: 近, 圖說, 『書經』, 天文圖說, 『入學圖說』, 〈一朞生閏之圖〉, 圖說經學

1. 서론

陽村 權近(1352~1409)의 『入學圖說』은 권근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조선 초기의 경학·철학·사상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받아온 텍스트이다. 『입학도설』은 권근이 金馬郡(현 익산)에 유배를 갔던 공양 왕 2년(1390) 가을부터 초학자들에게 『大學』과 『中庸』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¹⁾ 이때의 『대학』과 『중용』은 朱熹(1130~1200)에 의해 새롭게 정비된 章句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학도설』은 『대학』의 格物致知와 『중용』의 天命 등 性理學의 기초적인 이론 체계를 초학자에게 가르치기 위한 성리학 입문서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입학도설』의 연구는 주로 권근의 성리학과 經學觀 및 心性論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도설은 『입학도설』 내에서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人心性分釋之圖〉 등 심성론과 관련된 도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²⁾

-
- 1) 權近, 『入學圖說』,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 謫在金馬郡, 有一二初學輩來讀庸學二書者, 語之諄復, 尚不能通曉, 乃本周子之圖, 參章句之說, 作圖以示.”
 - 2) 권근의 經學과 天人合一 사상 및 『입학도설』을 논의하며 〈天人心性合一之圖〉를 비중 있게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대환, 『『入學圖說』을 통해 본 權近의 性理學』, 범한철학회, 26, 범한철학회, 2002; 전재성, 「權近의 性理論 考察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人心性分釋之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홍원식, 「권근의 성리설과 그 철학사적 위치」,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김기화, 「陽村 權近의 天人合一 사상」, 동양철학연구 62, 동양철학 연구회, 2010; 강문식, 「『入學圖說』의 編刊 경위와 經學論」, 장서각 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정민정, 「陽村 權近의 心性論 研究 -『入學圖說』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허광호, 「權近의 天人心性合一思想 研究 -『入學圖說』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전병욱, 「『入學圖說』의 심성론에

권근의 사상 및 『입학도설』에 대한 연구는 권근의 사유 체계를 성리학의 天人合一 사상으로 도출해 내었고, 이러한 관점으로 권근의 경학·철학·학문 등이 심도 있게 분석되어 유의미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典據가 모두 『입학도설』을 위시한 권근의 여타 저술에서 필요한 대목만 산발적으로 끌어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연구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근과 그의 경학에 대한 전모가 아직 환하게 드러나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권근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 전기로 빼어갈수록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존재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권근의 『입학도설』에 실린 각각의 도설 자체가 갖는 난해한 요소들로 인해 심층적인 분석이나 연구 방법의 다채로운 접근이 시도조차 되지 않아서인 듯하다. 일례로 『입학도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典據로도 많이 인용되는 〈天人心性合一之圖〉만 보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이 근래에야 몇 편 보일 뿐이다.³⁾ 기왕에 축적된 연구 성과 위로 개별 도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접근이 계속 시도되어야 권근의 학문 사상, 나아가 조선 전기의 학술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⁴⁾

본고에서는 권근의 『입학도설』 가운데 天文과 관련된 圖說, 그 가운데서도 ‘朞三百’ 圖說인 〈一朞生閏之圖〉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

대한 철학적 재해석」, 『퇴계학보』 148, 2020.

3) 김부연, 「『天人心性合一之圖』의 구성 원리와 그 원리」,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2018; 서명석, 「천인심성합일지도로 본 태극도설의 의미와 교육적 함의」, 『퇴계학논총』 40, 퇴계학부산연구원, 2022.

4) 이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입학도설》의 〈十二月卦之圖〉만을 다룬 연구(졸고, 2024)가 있다. 이 연구는 여말선초 문명 전환기의 두 사상가 鄭道傳과 權近의 도설 〈십이월괘지도〉가 나오게 된 각자의 배경과 각 도설의 同異를 고찰하고, 권근의 도설에 대한 편집 의리가 후대의 학자 黃孝恭의 〈십이월괘지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구에서는 권근의 『입학도설』에서 〈천인심성합일지도〉 등의 인성론과 관련한 도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인간 心性의 성리학적 해석과 이를 통한 천인합일의 추구를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人)과의 合一의 대상인 하늘[天]에 대한 이해 및 당대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천문도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⁵⁾ 천인합일사상 등을 논하며 일부 천문도설의 說을 인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圖 자체의 도식화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입학도설』에 실린 천문도설의 도와 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권근이 초학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였던 하늘과 인간의 유기체적 사유 구조의 실체가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권근의 ‘三百圖說’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될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圖說經學’이라는 주제 아래 권근의 도설이 갖는 특징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도설경학’이란 “도설을 통한 경학 저술”, “도설을 통한 경학 이해와 설명 방식”을 의미하는 경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⁶⁾ 조선 시대의 경학 연구는 도설을 통해 자신의 경서 이해와 경서 이론 체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등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학 연구의 한 방법을 도설경학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권근의 ‘기삼백’ 도설이 갖고 있는 도설경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조선 전기 도설경학 연구의 試論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
- 5) 이종상의 연구(1993)에서는 천문도설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권근의 우주관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圖의 도식화에 대한 분석 없이 주로 說의 내용만을 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부 도설에 한정하여 논하였다. 또한 조희영의 연구(2016)에서는 『입학도설』 전체를 개괄하면서 圖像의 도식화 양상에 주목하였지만, 천문도설은 일부 도설(〈天地豎看之圖〉, 〈天地橫看之圖〉)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春王正月橫看之圖〉를 천문도설로 규정하고 분석하였지만, 이는 春秋 관련 도설로 보아야 한다.
- 6) 졸고, 「九龍齋 白鳳來의 『書經』『虞書』 6圖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16.

2. 본론

1) 권근의 天文圖說과 ‘眞三百’ 圖說

권근의 『입학도설』에 실린 도설 가운데 〈中庸分節辨議〉, 〈語孟大旨〉, 〈掛扱過堞之法〉은 說만 있고 圖는 없으므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권근의 도설은 총 39개이다. 그런데 이 39개의 도설 중에 무엇을 천문도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입학도설』後篇의 첫 번째 도설인 〈十二月卦之圖〉는 1년의 순환이 12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도식에 보이므로 천문도설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12辟卦가 陰陽의 생성과 소멸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하나의 圓形으로 도식화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易과 관련한 도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朱子의 體用論과 관련하여 권근의 〈五經體用合一之圖〉에도 도식화되어 있듯이 五經의 각 경서와 그 내용은 오경 내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학도설』도 이러한 인식 아래 저술되었고, 후술하게 될 ‘도설경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각의 도설들은 각각 그 근간이 되는 經傳과 經文이 반드시 존재한다. 천문도설은 五經 중에서도 『書經』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자면, 권근의 〈십이월괘지도〉는 『周易』을 바탕으로 한 易經 도설이고, 〈春王正月橫看之圖〉는 『春秋』를 바탕으로 한 춘추 도설이라 할 수 있다.

『서경』 「虞書」의 첫 번째 편 「堯典」에서 요임금이 신하들[羲氏 · 和氏]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천문을 관측하고 曆法을 제정하여 백성들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⁷⁾ 이어서 羲仲 · 羲叔 · 和仲 · 和叔에게 사계절의 일을 각자 분담하도록 명하였고,⁸⁾ 마지막

7) 『書經』, 「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막으로 윤달[閏月]을 두어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⁹⁾ 이는 古代 농경사회의 통치자가 천문과 역법을 통해 농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大全本『서경』의 「書傳圖」에는 천문 역법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도설이 총 9개가 실려 있는데,¹⁰⁾ 이는 천문 역법과 관련한 「요전」의 해당 經文이 經書의 경문으로서 重視되어 대전본 편찬 당시의 천문 역법 지식과 圖像이 「서전도」를 통해 다양하게 도식화된 것이다.

그러나 「서전도」에 실린 천문도설은 경서의 경문을 읽는 학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역법 상식이었을 뿐, 천문 역법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권근의 『입학도설』에서 천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설들¹¹⁾ 또한 「서전도」의 천문도설과 마찬가지로 학자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천문 지식을 도식화한 것으로, 당대 지식인의 천문 역법에 대한 이해와 그때까지 축적된 고대 천문학 이론의 大體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권근의 『입학도설』에 보이는 천문 관련 도설은 도식화 樣相 등의 여러 측면에서 「서전도」의 그것과 구별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고대 천문 역법의 일반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전도」의 천문도설과 『입학도설』의 천문 도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로 같은 주제로 대응되는 도설들도 아니며,

8) 『書經』, 「堯典」, “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 以殷仲春, 厥民, 析, 鳥獸, 莩尾. 申命羲叔, 宅南交, 平秩南訛, 敬致, 日永, 星火. 以正仲夏, 厥民, 因, 鳥獸, 希革, 分命和仲, 宅西, 曰昧谷, 寅餞納日, 平秩西成, 育中, 星虛. 以殷仲秋, 厥民, 夷, 鳥獸, 毛毨, 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 星昴. 以正仲冬, 厥民, 廢, 鳥獸, 稗毛.”

9) 『書經』, 「堯典」, “帝曰, 奕! 汝羲暨和. 桉, 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 咸熙.”

10) 〈曆象授時圖〉, 〈四仲中星圖〉, 〈日永日短圖〉, 〈閏月定時成歲圖〉, 〈璇璣玉衡圖〉, 〈五辰之圖〉, 〈七政之圖〉, 〈明魄朔望圖〉, 〈日月冬夏九道圖〉.

11) 〈周天三辰之圖〉, 〈一朞生閏之圖〉, 〈天地豎看之圖〉, 〈天地橫看之圖〉, 〈望前生明之圖〉, 〈土圭測影之圖〉, 〈土旺四季之圖〉.

각각의 도설마다 독특한 도식화 양상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도설로서의 의의가 있다.

‘기삼백’은 앞서 언급한 『서경』「요전」에서 요임금이 희씨와 화씨에게 천문 관측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한 대목의 ‘기는 366일이니[朞三百有六旬有六日]’에서 온 것으로, 儒家에서 ‘기삼백’이라고 하면 『서경』의 해당 경문을 가리키고, ‘朞三百注’라고 하면 蔡沈의 『書集傳』에 실린 해당 경문의 주석을 가리킨다. 이 ‘기삼백주’에서 채침은 ‘19年 7閏法’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는 19년마다 7번 윤달을 둔다는 뜻으로, 태음태양력(음력)이 朔望月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가 지날 때마다 계절의 주기가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古代의 置閏法이다.¹²⁾ 따라서 이 ‘기삼백’은 ‘19년 7윤법’까지도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2) <一朞生閏之圖> 분석

‘朞三百’은 기본적인 천문 상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고대 천문 역법의 精髓라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기삼백’을 단독 주제로 한 도설이 대전본 『서경』의 「서전도」에는 <閏月定時成歲圖>가 있으며, 권근의 『입학도설』에는 <一朞生閏之圖>가 있다. 이 <일기생윤지도>는 권근의 ‘기삼백’ 도설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농경사회의 위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四時의 차례를 매년 오차 없이 확정하여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고대 천문 역법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리하여 매년 조금씩 바뀌는 節氣를 조율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이

12) 김동석, 『고전 천문역법 精解』, 한국학술정보, 2009.

바로 19년에 7번 윤달을 두는 置閏法이었고, 윤달을 두어 사계절을 바로잡는 일은 유가 경전 『서경』「요전」의 ‘기삼백’ 경문에 보이며, 채침의 『서집전』에 실린 ‘기삼백주’는 이 경문을 풀이하면서 ‘19년 7윤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권근도 유학자로서 천문 역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경사회 爲政者의 입장에서 매년 차질 없이 농사일을 완수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이는 다음 권근의 「天文圖誌」에도 잘 드러난다.

예로부터 제왕이 하늘을 받드는 政事는 曆象(달력)으로 天時를 알려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堯는 羲和에게 명하여 四時를 차례 짓고, 舜은 磡衡을 살펴 七政을 고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농사]에 부지런하기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이다.¹³⁾

‘天文圖’는 바로 태조 4년(1395)에 완성된 〈天象列次分野之圖〉를 가리킨다. 권근은 이처럼 책력의 반포를 통하여 天時를 알려주는 일을 제왕의 급선무로 여겼다. 또한 권근이 이 천문도의 제작에 참여하고 誌를 붙였다는 것은 권근이 천문 역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또 역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권근을 비롯한 유학자들의 천문 역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大全本 『서경』에 실린 「書傳圖」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전도」는 『서경』의 경문과 관련된 총 38개의 圖說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9개가 천문 역법과 관련된 도설이다. 「서전도」에 실린 천문도설은 모두 『서경』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는 천문 역법이 복잡한 數式에 밝았던 전문

13) 권근, 『陽村集』 권22, 跋語類, 「天文圖誌」, “自古帝王奉天之政, 莫不以曆象授時爲先務. 堯命羲和而秩四時, 舜在璣衡而齊七政, 誠以敬天勤民爲不可緩也.”

曆官들의 영역이었지만 유학자들도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기생윤지도〉는 권근의 여타 천문도설에 비하여 단순한 형태의 圖式을 보여주고 있다. 도의 이름을 풀면 ‘1朞에서 윤달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一朞’은 『서경』「요전」의 경문에 의하면 “366일”이고, 채침의 주석에 의하면 “365와 1/4일”이다. 「요전」의 “366일”은 대강을 말한 것이다. 채침의 “365와 1/4일”은 전국시대의 先秦 四分曆¹⁴⁾에서 19년 7윤법을 확립하면서 그 수식 계산의 기준이 되는 1태양년의 길이이다. 이 “19년 7윤법”은 태음태양력에서 쓰이는 역법인데, 19태양년과 235삭망월의 길이가 같다¹⁵⁾는 점에 착안하여 19년 동안 228삭망월 ($12 \times 19 = 228$) 외에 7개의 윤달을 더 두도록 만든 置閏法이다. 채침은 그의 ‘기삼백주’에서 「요전」의 경문을 풀이하기 위하여 선진 사분력의 19년 7윤법을 가져왔다.¹⁶⁾ ‘기삼백주’의 다소 복잡해 보이는 수식은 1태양년의 길이인 “365와 1/4(235/940)일”과 1태음년의 길이(12삭망월)인 “354와 348/940일”이 빗어내는 간격을 메워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서전도」의 〈閏月定時成歲圖〉는 그 과정에서 빗어진 수식을 도식 안에 채워 넣은 것이다. 원형의 바깥쪽을 1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1태양년과 1태음년이 1년마다 벌어지는 수치를 각각 기입하였고, 안쪽을

14) 後漢 章帝 때 도입된 四分曆(서기 85년)과 구분하기 위하여 선진시대의 太初曆 (B.C 104)과 三通曆(B.C 7)의 사분력을 선진 사분력이라고 한다. 김동석, 위의 책, 2009, 「曆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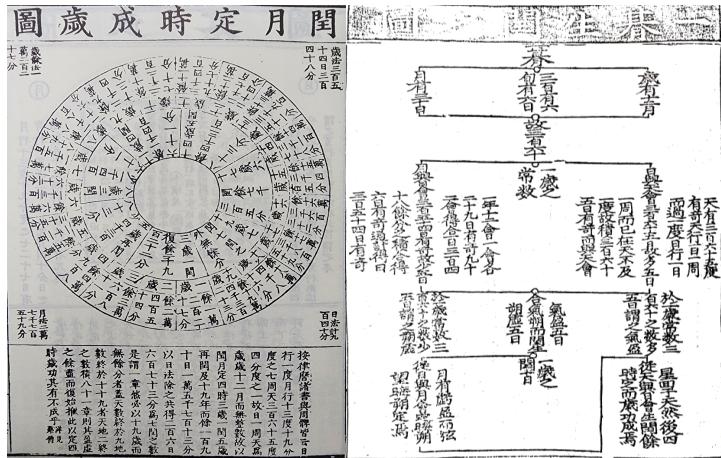
15) 1태양년은 365.242190일이며, 1삭망월은 29.530588일이다. 19태양년은 6,939.6016일이며, 235삭망월은 6,939.6884일이니 대략 0.09일의 오차가 있을 뿐 거의 일치한다. 김동석, 위의 책, 2009, 「曆法」 참조.

16) 채침은 부친 蔡元定과 함께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 지식을 가진 학자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삼백주’에서 선진 사분력에 의한 19년 7윤법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그친 이유는, 경서의 의리를 풀이하는 데에 보다 집중하면서 최소한의 천문 지식만 소개하면 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김동석, 위의 책, 2009, 「餘論」 참조.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19년 동안 7번 윤달이 드는 모습을 도식화하였다. 채침의 ‘기삼백주’에서 설명하고 있는 19년 7윤법을 하나의 커다란 원형 안에 그대로 담아낸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天圓地方’의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권근의 <일기생윤지도>는 <윤월정시성세도>와 같은 주제의 ‘기삼백’ 도설인데, 도식화한 양상이 현격하게 다르며, 내용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도식화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縱的 구조로, 상하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윤월정시성세도>에서 커다란 원형을 통해 하늘은 둥글다는 인식의 저변을 보여주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도식 체계이다. 천문도설은 원형의 구조 틀에서 도식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데,¹⁷⁾ 천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삼백’을 풀이하는 도설에서 방형 위주의 구조 틀로 도식화하였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원형 위주의 기존 천문도설과 구별된다. 이는 권근이 <일기생윤지도>를 저술하면서 이를 천문의 일이 곧 사람의 일이라는 인식을 얼마간 드러낸 것이다.

17) 「서전도」에 실린 9개의 천문 관련 도설 가운데 7개의 도설이 원형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중 <七政之圖>와 <五辰之圖>는 方形으로 도식화되어 있는데, 이는 두 도설이 하늘의 천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七政과 五辰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五行 논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閏月定時成歲圖〉 〈一朞生閏之圖〉

<일기생윤지도>의 방형 도식의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一朞”는 위치 상 하늘을 의미하며, 이는 변함없는 天體 운행의 법칙을 상징한다. 하늘의 절대 법칙 중 하나인 “一朞”가 바로 <일기생윤지도>의 주제이다. 권근의 『입학도설』全篇은 그의 天人合一 사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 『입학도설』후편의 천문 관련 도설들은 일차적으로 하늘[天]의 변함없는 법칙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一朞”에 대해서는 『서경』 「요전」의 經文에서 366일〔朞, 三百有六旬有六日.〕이라 하였다.¹⁸⁾ 권근은 〈일기생윤지도〉에서 이를 “一朞” 바로 아래에 “三百有六旬有六日”이라고 표기하였다. 해당 경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한 해는 12개월이다〔歲有十二月.〕”라고 하였고, 좌측에는 “한 달은 30일이다〔月有三十日.〕”라고 표기하여, 이 두 가지와 중앙의 “三百有六旬有六日”을 종합하면서 그 아래에서 “그러

18) 『書經』，『堯典』，“朞，三百有六旬有六日。”

므로 360일이다(故三百六十).”라며 수렴하였다. 이는 “一朞”은 ‘366일’인데 ‘한 달은 30일’이고 ‘한 해는 12개월’이기 때문에 ‘一朞’은 ‘360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아래에 다시 “一歲之常數”라고 하여 1년 360일이 한 해의 변치 않는 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명제는 채침의 ‘기삼백주’에도 그대로 보인다.¹⁹⁾

“一歲之常數”的 우측과 좌측에 보이는 문사에서는, 채침의 ‘기삼백주’에 보이는 19년에 7번 윤달을 두는 과정에 대한 복잡한 수식을 최대한 간명하게 설명해 놓았다. 먼저 우측의 가운데 놓인 문사는 “해가 하늘과 만나는 날이 365일이므로 5일이 많다[日與天會三百六十五日 故多五日].”이며, 이 문사를 중앙으로 하여 우측부터 좌측으로 놓인 문사는 ‘어떻게 해가 하늘과 만나는 날이 365일이 되는가.’에 대한 권근의 설명이다.

하늘은 365도와 나머지(1/4일)이다. 하늘의 운행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1도를 지나치고, 해의 운행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뿐이니, 하늘에 있어서는 1도가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365일과 나머지를 쌉아 하늘과 만난다.²⁰⁾

여기서 도출하고 있는 ‘365와 1/4일’은 1년 동안 해가 운행하는 도수인 ‘周天度數’이다. 해와 달의 어긋남으로 인해 윤달을 두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해의 운행 도수를 밝힌 대목이다. 선진 사분력의 ‘19년 7윤법’을 설명하고 있는 채침의 ‘기삼백주’와 같은 논리인데, 권근의 설명은 ‘기삼백주’의 해당 내용에 비하여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한 까닭으로는 방형의 천문 도식을 통하여 간편하고 명료하게 하늘의 一

19) 채침, 『書集全』, “歲有十二月，月有三十日，三百六十者，一歲之常數也。”

20) 권근, 『입학도설』, 〈일기생윤지도〉圖式, “天有三百六十五度有奇，天行一日一周而過一度，日行一日一周而已，在天不及一度。故積三百六十五日有奇而與天會。”

律性과 자신의 철학 체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다음 그 좌측에 놓인 문사는 달의 운행에 관한 내용으로, 우측의 해의 운행 도수를 밝힌 대목과 구조가 동일하다. 먼저 그 가운데 놓인 문사는 “달이 해와 만나는 날이 354일과 나머지이므로 5일이 적다[月與日會三百五十四日有奇 故少五日].”인데, 역시 이 문사를 중앙으로 우측부터 좌측으로 놓인 문사는 ‘어떻게 달이 하늘과 만나는 날이 354일과 나머지가 되는가.’에 대한 권근의 설명이다.

(달은 해와) 1년에 12번 만나는데, 한 번 만날 때에 각각 29일과 나머지(499/940)가 된다. 모두 12번 만나면서 하루가 되는 날을 얻는 데, 348일과 여분이 쌓인 것을 합하면 6일과 나머지(348/940)를 얻으니, 얻은 날을 통산하면 354일과 나머지이다.²¹⁾

해당 내용의 ‘기삼백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달은 운행 속도가 해보다 더 느려서 하루에 하늘보다 13과 7/19도를 못 간다. 그리하여 달은 29와 499/940일[1삭망월]이 쌓여서 해와 만나고, 이렇게 12번을 만나면 348과 5988/940일이 된다. 5988/940일은 다시 6과 348/940일이 되고, 이를 348일과 합하면 총 354와 348/940일이 되니, 이것이 달이 1년 동안 운행하는 도수이다.²²⁾ 이처럼 채침의 ‘기삼백주’는 나머지 날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권근은 전체 논리를 최대한 약술하면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나머지[有奇].’라는 정도로 생

21) 권근, 위의 책, 〈일기생윤지도〉 도식, “一年十二會，一會各二十九日有奇。凡十二會得合一日，三百四十八餘分之積合得六日有奇，通計得日，三百五十四日有奇。”

22) 채침, 『書集全』, “月麗天而尤遲，一日，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會，十二會，得全日三百四十八，餘分之積，又五千九百八十八，如日法九百四十而一，得六，不盡，三百四十八，通計得日，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是一歲月行之數也。”

략하였다. 권근은 위에서 해의 운행 도수를 설명할 때에도 ‘나머지[有奇]’라고 하였는데, 이 1/4일에 대해서도 채침의 ‘기삼백주’에서는 추후 달의 운행 도수와 함께 계산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4일을 235/940일로 표기하였다.²³⁾ 하루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날에 대해 권근은 모두 ‘나머지[有奇]’라고 표기하였는데, 해의 운행과 달의 운행에 있어서는 같은 ‘나머지’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기 때문에 권근의 도식 속에 보이는 문사는 일견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계산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일기생윤지도〉 도설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라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래에 놓인 문사는 위에서 설명한 해의 운행과 달의 운행에 의해 발생하는 소위 ‘氣盈’과 ‘朔虛’에 관한 정의이다. 그 우측에서는 “한 해의 상수인 360일의 수보다 5일이 많은 것을 ‘기영’이라고 한다[於一歲常數三百六十之數多五日 謂之氣盈].”라고 하였고, 좌측에서는 “한 해의 상수인 360일의 수보다 5일이 적은 것을 ‘삭허’라고 한다[於一歲常數三百六十之數少五日 謂之朔虛].”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앙에서 “기영과 삭허를 합하여 윤달이 생긴다[合氣朔而閏生].”라고 하였다.²⁴⁾ 이상의 기영과 삭허는 ‘기삼백주’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권근의 〈일기생윤지도〉는 선진 사분력의 ‘19년 7윤법’을 그대로 답습한 채침의 ‘기삼백주’의 내용과 논리를 방형 구조로 도식화한 도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3) 채침, 『書集全』,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天會，是一歲日行之數也。”

24) 도식상에서 ‘合氣朔而閏生’의 우측으로 ‘기영 5일(氣盈五日)’, 좌측으로 ‘삭허 5일(朔虛五日)’, 아래에서 ‘한 해의 윤(閏)’은 10일이다(一歲之閏十日),’라고 표기한 것은 ‘合氣朔而閏生’를 뒷받침하는 선진 사분력의 논리들을 권근이 매우 간소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 아래 〈일기생윤지도〉의 최하부에 위치한 문사에서는 윤달을 두는 功效를 밝히고 있다. 우측에서는 “하늘과 해가 만나는 것으로부터 윤여가 생긴다[從天與日會生閏餘].”라고 하면서, “별이 하늘을 돋 뒤에야 사계절이 정해지고 세공[농사]이 이루어진다[星回于天 然後四時定 而歲功成焉].”라고 하였고, 좌측에서는 “해와 달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그믐과 초하루가 정해진다[從日與月會定晦朔].”라고 하면서,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것이 있어서 반달, 보름, 그믐, 초하루가 정해진다[月有虧盈 而弦望晦朔定焉].”라고 하였다. 다시 『서경』 〈요전〉의 경문으로 돌아가서²⁵⁾ 윤달을 두어야만 매해 사계절이 바로잡혀 농사일이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명제를 다시 환원하는 내용들이다.

〈일기생윤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최하부에서 보인다. 먼저 〈일기생윤지도〉를 크게 좌우로 나누어 보면, 우측은 해와 관련된 설명이고 좌측은 달에 관한 설명이다. 이는 권근의 대표적인 도설인 〈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우측을 ‘善’으로, 좌측을 ‘惡’으로 구분 지은 도식 구조와 유사한 체계이다. 또한 〈일기생윤지도〉는 ‘一朞’를 최상단에 놓고 해와 달이 좌우로 나뉘어 아래로 뻗어가는 구조인데, 〈천인심성합일지도〉도 최상단부터 좌우로 나뉘어 아래로 내려가는 도식 구조이다. 상단, 중단, 하단 등 각각의 층위로 보더라도 〈천인심성합일지도〉는 ‘天’과 ‘誠’을, 〈일기생윤지도〉는 ‘一朞’를 최상단에 배치하여 절대적인 법칙과 운행을 나타내었으며, 또 두 도설에 배치된 각각의 문사들을 정확히 상대시키기는 어려우나, 각각의 중단에 배치한 ‘心’과 ‘360日(一歲之常數)’은 최상단의 그것들과 연계하여 각각 상통하는 양상임을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진 하단에서는 두 도설 모두 세 단계의 층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용이 심화된다는 점과 하단 마지막 층

25) 『書經』, 「堯典」, “朞, 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廢績, 咸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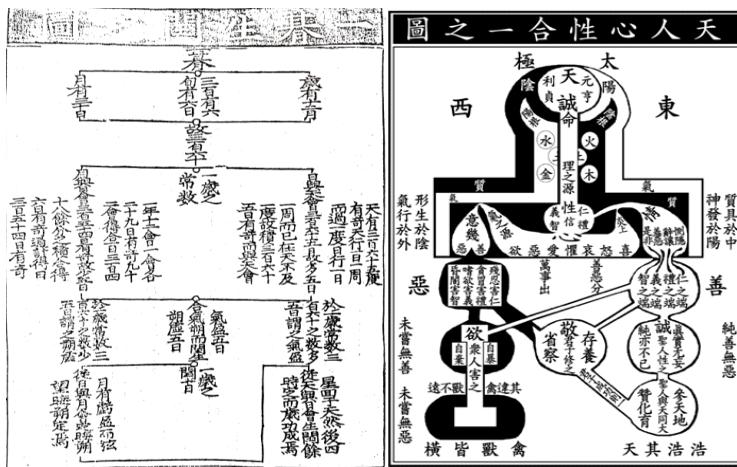
의 우측은 해당 도설의 궁극처라는 점에서 유사한 도식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도설 간의 유사한 도식 구조 아래 〈일기생윤지도〉의 최하부에서도 우측은 해, 좌측은 달과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도식 전체에서 상하를 연결하고 있는 직선의 방향을 자세히 보면, ‘一歲之閏十日’에서 나온 직선은 최하부의 달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나온 직선은 달에서 다시 해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어 있다.²⁶⁾ 따라서 〈일기생윤지도〉의 직사각형 방형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從天與日會生閏餘’이다. 이 문사를 중앙으로 도식의 좌우에 놓여 있는 “별이 하늘을 돋 뒤에야 사계절이 정해지고 세공〔농사〕이 이루어진다.”라는 문사가 『서경』 ‘기삼백’의 결론이라는 사실은, 이곳이 이 도식의 도착지라는 사실과 상통한다. 이는 도식의 제약적인 틀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우측과 좌측을 각각 해와 달에 대한 설명으로 배치하고, ‘윤달을 두는 과정’ → ‘달의 변화〔弦望晦朔〕’ → ‘성공적인 한 해 농사’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상부의 ‘一幕’가 우측의 ‘日’과 좌측의 ‘月’과 함께 아래로 뻗어 내려갔다가 최하부에서 도식을 횡으로 가로질러 궁극적으로 ‘歲功成’에 도달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이는 권근이 철저하게 의도한 도식 구조와 문사 배치로 보아야 한다.

〈일기생윤지도〉의 이러한 도식 구조와 문사 배치는 앞에서도 언급하

26) 도식의 우측을 보면 ‘於一歲常數三百六十之數多五日謂之氣盈’에서 직선이 나와서 아래의 최하부인 ‘從天與日會生閏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좌측을 보면 ‘於一歲常數三百六十之數少五日謂之朔虛’에서 직선이 나와서 아래의 최하부인 ‘從日與月會定晦朔’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해를 우측에 놓고 달을 좌측에 놓는 〈일기생윤지도〉의 도식 구조의 통일성을 추구한 데에서 기인한다. 권근은 ‘一歲之閏十日’에서 직선을 내어 ‘從日與月會定晦朔’로 연결하였고, 다시 여기에서 직선을 내어 도식을 횡으로 가로질러 ‘從天與日會生閏餘’로 연결하였다.

였듯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유사한 양상을 갖는다.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도 도식의 하단 틀에서 좌측으로부터 도식을 횡으로 가로질러 우측으로 넘어가는 도식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는 心性의 차원에서 좌측의 ‘惡’이 ‘敬’을 통해 우측의 ‘善’으로 이동하는 굽은 직선이 도식화되어 있고, 우측의 최하부는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드러내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인 ‘天人合一’의 경지에 해당된다. 이 또한 <일기생윤지도>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인 ‘歲功成’을 우측의 최하부에 놓은 것과 동일한 구조이다.



<一昇閨之圖>

<天人心性合一之圖>

<천인심성합일지도>²⁷⁾는 『입학도설』前篇의 가장 앞에 놓인 도설이자 『입학도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도설이다. <일기생윤지도>는 『입학

27) 본문에 첨입한 <천인심성합일지도> 도식은 기준의 도식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상곤, 『入學圖說』前集 圖像復元과 디지털화,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참조.

도설』의 後篇에서 세 번째에 놓인 도설인데, 방형의 도설로는 첫 번째이다. 〈일기생윤지도〉의 앞에 놓인 두 도설은 易의 12辟卦를 도식화한 〈十二月卦之圖〉와 사계절의 별자리를 도식화한 〈周天三辰之圖〉인데, 모두 원형 구조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일기생윤지도〉는 ‘一朞’을 주제로 하는 천문 역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권근은 이를 방형으로 도식화하여 앞의 두 도설과는 성격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권근은 『입학도설』의 후편을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천문도설을 삽입하였는데, 前篇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천인심성합일지도〉의 도식 구조와 유사한 체계로 〈일기생윤지도〉를 도식화하였다는 것은, 천문의 ‘一朞’를 사람의 그것과 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목하였다는 한 증거이며, 이러한 도식화 틀을 통하여 ‘天’과 ‘人心’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일기생윤지도〉의 도설²⁸⁾은 다른 도설들에 비하여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식에 대한 설명인 도설이 소략하다는 것은 도식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논리를 다 입증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씨가 말하였다. “기영인데 윤달을 두지 않으면 그믐, 초하루, 반달, 보름[晦朔弦望]이 어긋나고, 삵허인데 윤달을 두지 않으면 春夏秋冬이 어긋난다.²⁹⁾

〈일기생윤지도〉의 도설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기서의 김씨(金氏)는 『書傳輯錄纂註』 등에 의하면 이름은 燐이며 番場 사람인데,³⁰⁾ 그 외

28) 여기서의 “圖說”은 “圖式”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도식화한 “圖”를 의미하는 “도식”的 뒤에 별도로 부기하여 해당 “圖”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설”이라고 하면 “도식”과 여기서의 “도설”을 함께 포괄하는 의미이다.

29) 권근, 위의 책, 〈일기생윤지도〉, “金氏曰，氣盈而不置閏，則晦朔弦望差，朔虛而不置閏，則春夏秋冬差。”

30) 欽定四庫全書 經部二 『書傳輯錄纂註』引用諸書, “金氏，燐，番場，閏講星說.”, 『書傳大

의 행적은 미상이다. 권근이 인용한 金燧의 해당 설은『서전집록찬주』의〈堯典〉‘기삼백’ 經文 아래의 輯錄 내에 보이며, 『서전집록찬주』의 “引用諸書”에 의하면 이는 김수의 〈閏講星說〉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수의 해당 설은 대전본 『서경』의 小註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대전본 『서경』의 ‘기삼백주’ 아래에는 적지 않은 분량의 細注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13인의 학자들의 설이 있다.³¹⁾ 세주에 보이는 설들은 대체로 채침이 기왕에 풀이한 ‘기삼백’과 관련된 曆法을 보충 설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전본 『서경』의 세주에 보이는 이 설들은 『서전집록찬주』의 해당 집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대전본 『서경』에는 여기에다 陳雅言의 설만 말미에 추가되었다. 김수와 〈閏講星說〉에 대한 언급이 현재로서는 『서전집록찬주』와 대전본 『서경』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본지와 약간 벗어났지만, 권근이 〈일기생윤지도〉의 도설에서 인용한 문사를 통해 당시 권근이 참고하였던 『서경』 주석서는 元나라 董鼎이 편찬한 이 『서전집록찬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³²⁾

3) 권근 ‘기삼백’ 도설의 圖說經學적 특징

조선후기의 재야학자 九龍齋 白鳳來(1717~1799)의 『書經』「虞書」와 관련된 圖說을 圖說經學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를 전개한 바 있는 줄고(조현석, 2016)에 의하면, 도설경학은 크게 體系性, 簡便性, 明澄性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체계성은 도설 자체가 갖는 의의로, 경서 이해의 표현 방식의 하나인 도식화를 통해 자신의 경서 이해에 대한 체계

全』書傳大傳卷首 引用先儒姓氏 元 “金氏, 燐, 番易.”

31) 순서대로 朱子(宋), 孔安國(漢), 孔穎達(唐), 沈貴璫(宋), 吳亨壽(元), 蘇軾(宋), 陳普(元), 金燧(元), 陳櫟(元), 林之奇(宋), 呂祖謙(宋), 董鼎(元), 陳雅言(明)이다.

32) 이은호의 연구(2015)에서도 권근의 『書經淺見錄』을 분석하면서 당시에 권근이 『書傳輯錄纂註』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간편성은 경서 이해는 넓은 시각을 요구하므로 그 복잡한 내용을 하나의 도상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징성은 경서 이론의 입증을 의미하는데, 도설을 통해 자신의 경서 해석과 이론을 명료하게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도설경학의 세 가지 특징은 백봉래의 도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도설경학의 범주 내에 있는 권근의 『입학도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권근의 〈일기생윤지도〉에 한정하여 권근의 도설이 갖는 도설경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설경학의 體系性이다. 이는 도설 자체가 갖는 의의이기 때문에 경학 저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도설이 갖추고 있는 태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기생윤지도〉는 권근이 『서경』「요전」의 '기삼백' 경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의 하나이다. 이를 도식화 한 〈일기생윤지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체계성을 갖춘 도설경학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일기생윤지도〉의 도식이 어떠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는 도설경학의 簡便性이다. 이는 〈일기생윤지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대전본 『서경』에 보이는 '기삼백' 도설인 〈윤월정시성제도〉는 채침의 '기삼백주'에 보이는 '19년 7윤법'의 복잡한 수식 과정을 19개로 나눈 원형 틀 안에 그대로 채워 넣은 도설인데, 권근의 〈일기생윤지도〉는 방형 틀의 구조 속에 위에서 아래로 '一朞'에서 '歲功成'으로 이르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간편성을 추구하였다. 도식 안에 놓인 문사에서도 '기삼백주'의 '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 등을 '有奇'로 한결같이 요약하였다. 그러나 〈일기생윤지도〉에 보이는 이와 같은 간편성은 '기삼백'을 풀어주어야 하는 도설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불친

절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설 제작자가 ‘기삼백’의 수식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한계로 지적될 여지도 있다. 이는 권근이 〈일기생윤지도〉의 제작 목적이 ‘기삼백’의 수식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방형의 도식 구조 내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늘의 법칙을 드러내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도설경학의 明澄性이다. 명징성은 도설경학 제작자의 經說이 도식화를 통해 明澄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로, 〈일기생윤지도〉는 바로 이와 같은 도설경학의 특징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도설이라 할 수 있다. 권근은 〈일기생윤지도〉를 통하여 하늘의 절대적인 법칙을 상정하고 있으며, 〈천인심성합일지도〉와의 도식적 配應을 통하여 권근 經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天人合一 사상이 『입학도설』全篇에 관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 도설경학의 세 가지 특징을 권근의 〈일기생윤지도〉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설경학이 ‘조선시대 도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얼마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설경학’이라는 용어의 정립과 그 주제 의식 아래 ‘조선시대 도설’ 전체에 대한 용이한 분석과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록 권근의 『입학도설』에 실린 많은 도설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논의한 것이라 전체로 추급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여타 도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 본다.

3. 결론

이상에서 권근의 '기삼백' 도설인 〈일기생윤지도〉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니, 먼저 〈일기생 윤지도〉는 〈천인심성합일지도〉와 配應하는 도설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두 도설의 도식화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의 유사성을 들었다. 두 도설은 도식화 체계가 하나의 직사각형의 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측과 좌측에 서로 상대되는 개념[선과 악/해와 달]을 배치하였다. 또한 최하부의 우측은 도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天人合一(聖人)/歲功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측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지만 좌측에서 도식을 횡으로 가로질러서 이르게 되는 양상을 두 도설에서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입학도설』의 여타 도설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두 도설만이 갖는 공통점으로, 권근은 『입학도설』의 後篇을 저술할 때 천문도설에서 '一朞'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前篇의 〈천인심성합일지도〉와 配應하는 방향으로 〈일기생윤지도〉를 저술한 것이다.

또한 권근 자신이 『입학도설』을 통해 표명하고자 하였던 천인합일 사상을 후편에서도 그대로 관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근은 천문도설들을 통하여 하늘이 갖는 변함없는 自然律을 천문 도식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천문도설들은 『입학도설』 前篇에 보이는 心性論에서 인간의 道德性이 하늘과 合一하는 양상을 도식화한 도설들과 자연히 짹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설이 바로 전편의 〈천인심성합일지도〉와 후편의 〈일기생윤지도〉인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권근의 '기삼백' 도설 〈일기생윤지도〉는 권근의 천인합

일 사상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늘[天]과 관련된 도설 가운데 하나이다. ‘기삼백’은 『서경』「요전」의 경문으로 실렸다는 점과 해와 달의 운행 주기로 인한 오차를 置閏으로 조율하여 사계절의 農功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고대 천문 역법의 精髓로 인식되어 온 개념이다. 권근은 그 중요도를 인식하여 ‘一朞’를 주제로 한 〈일기생윤지도〉를 제작할 때 『입학도설』의 핵심적인 도설이라 할 수 있는 〈天人心性合一之圖〉와 유사한 체계로 도식화하였으며, 그 저변에는 사람의 心性과 하늘의 自然律에 대한 도식화를 통하여 천인합일 사상을 『입학도설』 내에서 유기적으로 관철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비록 〈일기생윤지도〉 하나의 도설만으로 논의하였지만, 권근의 천문도설은 天體가 일정한 법칙 속에 운행하는 다양한 양상 그 자체를 도식화함으로써 하늘의 불변성과 일률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도설들이다. 이는 그대로 『입학도설』 前篇의 心性 도설과 짹이되어 권근의 천인합일 사상을 완성하였다.

조선조의 도설은 자신의 경서 이해의 깊이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도식만이 갖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또한 그 도식 속에는 기존 경전에서 풀이하는 보편적인 논리 체계도 있지만, 각각 개인의 개성적인 측면들도 각 도설들의 도식화 과정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도설경학의 특징은 크게 體系性, 簡便性, 明澄性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하나의 사례로 권근의 〈일기생윤지도〉를 분석하여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이 도설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설경학은 도설 제작자의 經說을 立論하는 효과적인 방편이자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저술 목적과 용처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조선조 도설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조선시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용어를 상정해야 한다면, 기존의 ‘조선시대 도설’ 등과 같은 표현으로는 얼마간 한계가 있어 보인

다. 여기서 소위 ‘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儒家 經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도설이 곧 하나의 經學 저술로 볼 수 있으므로 ‘도설’과 ‘경학’을 결합하여 ‘도설경학’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쓰더라도 무방해 보인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 또한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 『國譯 陽村集』, 민족문화추진회, 1979.
『陽村集』(한국문집총간 7), 민족문화추진회, 1990.
『入學圖說 全』, 安東權氏 서울花樹會, 景文社, 1982.
『書傳輯錄纂註』.

2. 단행본

- 김동석, 『고전 천문역법 精解』, 한국학술정보, 2009.

3. 논문

- 강문식, 「『入學圖說』의 編刊 경위와 經學論」, 『장서각』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김기화, 「陽村 權近의 天人合一 사상」, 『동양철학연구』 62, 동양철학연구회, 2010.
김부연, 「「天人心性合一之圖」의 구성 원리와 그 원리」,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2018.
서명석, 「천인심성합일지도로 본 태극도설의 의미와 교육적 함의」, 『퇴계학논총』 40, 퇴계학부산연구원, 2022.
이상곤, 「『入學圖說』前集 圖像 復元과 디지털化」,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논문집』 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이은호, 「陽村 權近의 書經 認識」, 『동양고전연구』 51, 동양고전학회, 2015.
이종상, 「『入學圖說』後集을 통해 본 陽村의 思想」, 『한국철학논집』 3, 한국철학사

학회, 1993.

- 전병욱, 「『入學圖說』의 심성론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 『퇴계학보』 148, 2020.
- 정대환, 「『入學圖說』을 통해 본 權近의 性理學」, 『범한철학』 26, 범한철학회, 2002.
- 정민정, 「陽村 權近의 心性論 研究 -『入學圖說』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15.
- 전재성, 「權近의 性理論 考察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人心性分釋之圖〉를 중심 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조현석, 「九龍齋 白鳳來의 『書經』『虞書』 6圖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조현석, 「鄭道傳과 權近의 〈十二月卦之圖〉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68, 동양한문 학회, 2024.
- 조희영, 「조선 圖書學의 효시 - 권근의 『入學圖說』」,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 허광호, 「權近의 天人心性合一思想 研究 -『入學圖說』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7.
- 홍원식, 「권근의 성리설과 그 철학사적 위치」,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Abstract

Kwon Geun(權近)'s the Book of Document “300 days a year(暮三百)” Diagrams and Reputation of “Diagrammatic Korean Confucianism(圖說經學)”

Jo, Hyeon-Seok *

“Il-gi-Saeng-yun-ji-do(一朞生閏之圖)” by Kwon Geun(權近), a scholar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can be said to be his “300 days a year(暮三百)” Diagrams. This is a diagram related to the sky that plays a role in Kwon Geun(權近)'s system of the idea that heaven and man come together. This “Il-gi-Saeng-yun-ji-do(一朞生閏之圖)” is paired with the most important diagram in Kwon Geun(權近)'s “Ip-Hak-Do-Seol(入學圖說)” At the base of it, there was an intention to organically carry out the idea that heaven and man come together within “Ip-Hak-Do-Seol(入學圖說)” through a schematic diagram of the natural rate of the human mind and the sky.

In addition, Kwon Geun(權近)'s “Il-gi-Saeng-yun-ji-do(一朞生閏之圖)” was analyzed as an example of “Diagrammatic Korean Confucianism(圖說經學)”, an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characteristics such as systemicity, simplicity, and reputation of “Diagrammatic Korean Confucianism(圖說經學)” were also expressed in the “Il-gi-Saeng-yun-ji-do(一朞生閏之圖)”

Key Words

Kwon Geun(權近), Diagrams(圖說), “Ip-Hak-Do-Seol(入學圖說)”, The Book of Documents(Shangshu 尚書), “Il-gi-Saeng-yun-ji-do(一朞生閏之圖)”, “Diagrammatic Korean Confucianism(圖說經學)”

논문접수일: 2025.12.09. 심사완료일: 2025.12.18. 게재확정일: 2025.12.30.

* Ph.D. program in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daljonam@naver.com